

폭염피해농가 재해보험금 조기지급

농식품부-NH농협손보 전북총국, 신속조사와 병행... 88농가에게 7억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임정현)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폭염으로 접수된 전북 관내 가축 피해는 돼지, 닭 등 총 720여 농가, 농작물 피해는 총 130여 농가이며, 주요작물은 사과, 배, 단감, 뽕잎 등이며 일소(햇볕대입)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손해보험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지역 농협에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폭염피해로 가축농가는 총 720여 농가가 약 51억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 88농가에게 약 7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억원을 신속 지급했다.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4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사과, 배 등 과수작물에 동상해 피해를 입은 전북 농가에 보험

금 36억원을 조기 지급했고, 사고 조사를 마친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 등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하면 조기 수령할 수 있다.

농협손보가 동상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는 총 564 농가에 달했으며, 추정보험금은 사과가 28억원, 배가 6억원 등 총 30억원으로 집계 됐다.

NH농협손해보험 임정현 총국장은 "올해는 동상해, 폭염 등 이상기온에 의한 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보험금 조기 지급을 실시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일조할 것이며, 특히 전북관내 과수농가는 11월에 판매 예정인 적과전 중합위험 상품에 꼭 가입하여 안심하고 농사짓길 권유드린다"라고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 50%를 정부 지원, 30%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농가는 20% 정도 부담하는 정책 보험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은 9일 지역본부에서 수출협의회 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수출추진 전략회의'를 열었다.

하반기 수출 3500만불 달성 결의

전북농협, 추진 전략회의

전북농협은 9일 지역본부에서 수출협의회 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수출추진 전략회의'를 했다.

수출협의회 회장인 방금원 남원원에 농협 조합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전북농협 상반기 수출현황 분석 및 하반기 수출확대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특히, NH농협무역 농산물수출부 김상길 부장을 초청, 2018년 농산물 수출동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향후 수출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했다.

또한, 수출협의회 농협 조합장들은 상호협력·정보공유 등을 통해 농산물수출에 선도적인 역할, 판로를 확대하

는 등 농산물 제값받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했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전북농협의 농산물 수출이 전년 대비 42% 성장했다"며, "하반기에는 배를 필두로 파프리카, 메론, 밤 등을 베트남, 홍콩,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올해 농산물 수출목표 3500만불을 기필코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방금원 회장은 "전북농협 수출협의회가 농산물 수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파란먼저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 농가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여는 선도 농협이 되자"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성장률보다 일자리 늘리는 것이 훨씬 중요” | 김동연 경제부총리

“혁신성장 통해 경제 3% 성장토록 노력” 플랫폼경제 활성화와 8대 선도사업 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와현적인 성장률 숫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오죽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추겠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6일 삼성 전자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 등 경영진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일자리가 20만개, 25만개까지 늘어난다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고용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하면서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32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지난 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때는 18만명으로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김 부총리는 "현재로서도 일자리 18만개 전망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창업이다. 지난해 창업 기업 수가 9만7000~8000개 정도인데, 올해는 12만개를 목표로 했다. 상반기 중 창업 기업이 7~8% 늘었는데, 이같은 창업 일자리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경제의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혁신성장에 집중해 3% 성장률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3% 성장경로를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은 시장에서 보면 창조적 파괴"며 "국가경제 차원에서 전방위적 구조개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뿐 아니라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경제산업 쪽에 초점을 맞춘 혁신의 내용으로 혁신생태계 조성, 창업혁신 안전망 구축 규제혁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플랫폼경제 활성화와 8대 선도사업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경제는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로 개별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며 "플랫폼 강국이 돼야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시

대에서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 경제활동을 담는 그릇이 플랫폼이라고 역설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말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플랫폼업체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플랫폼경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만 해도 금융·게임·유통·공공행정·제조업까지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과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인데 정부가 할 역할은 하겠다"고 언급했다.

8대 선도사업도 플랫폼경제의 큰 틀에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올해 플랫폼경제와 선도사업 관련 예산이 2조가 안 됐는데 내년 예산 편성 때 5조원 이상 투입되도록 하겠다"며 "적어도 4~5개 분야 플랫폼 활성화와 핵심인력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창업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측면 지원 얘기도 꺼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운영 이래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이 넘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NH농협은행 전북, 익산 부송동 경로당서 위로활동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9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 위로활동을 벌였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지난 7일 자매결연을 맺은 순창군 호계마을 경로당을 찾아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로, 8일에는 김장근 본부장과 오석원 익산시지부장이 함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 수박 및 음료 등을 전달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일일이 안부를 물어 "시원한 수박과 음료를 드시고,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며,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는 농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은행, 도민과 고객의 사랑을 받는 은행이 되기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개칭, 생수를 제공 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김영태 기자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